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8월 7일 (제85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종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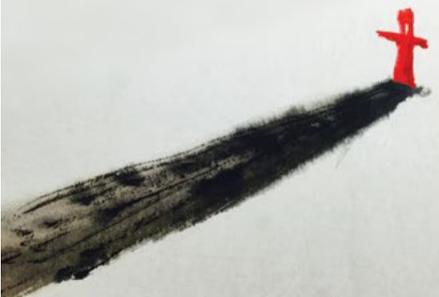
주여! 나로 하여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되게 하시며
더운 곳에 구름과 바람이 되게 하소서.

추위와 굶주림의
옷과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둠밤 망망대해
등대지기 되게 하소서.

고달픈 인생들
목마른 사막 길 오아시스 되게 하시고
어둠밤길 빛난 별
망민의 길벗이 되게 하시라
부르시면
성도와 함께 들림 받게 하소서.

이것이 종의 바람입니다.

2016. 7. 30 새벽 장성기도원에서
朋友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도로를 따라 도착한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그곳에서 8월 1일부터 3주 동안 하계산상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첫 주,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영·혼·육이 방전된 자들이 충전을 위해 몰려와 성전은 그야말로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첫 날 단에 오르신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일으키시고 채우셨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어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멈췄습니다. 집회 후에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यो,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걱정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말이 저와 환경을 감싸고 눌러 집회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의 말이 여러분을 잡고 감싸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

운이가 하는 말, ‘이 목사, 나에게서 철칙이 있네. 믿음과 실력 있는 자만 만나주라는 예수님의 특명이 있어 그에 따를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과 행운은 실력과 믿음 있는 자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생각은 듣고 본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의 말과 불평불만의 말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걱정을 하길랑 ‘친구,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십시오. 누가 나를 격려한답시고 세상 불평불만



2016 하계산상집회(8월 1일 ~ 18일,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롬4:17).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요(눅18:27), 죽은 자를 살리고 태양도 멈추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몽골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할 때 날씨가 사나웠습니다. 비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휘장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때 많은 사람이 ‘비바람이 세서 집회를 못하겠다’,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를 마친 후 집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단상 앞으로 나가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바람은 멈출지

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잘 해야지만, 듣는 말도 가려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심걱정의 말을 타고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어디가 조금 아프면 ‘병원 가야하지 않겠니?’ 하며 걱정하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말을 들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니?’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느 날, 불평불만 많은 친구를 데리고 저의 절친한 친구 행운이를 찾아갔습니다. 행운이는 우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행운이에게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를 소개하며, ‘여보게 행운, 이 친구가 자네를 만날 수 없다며 욕을 하길래 데려왔네. 이 친구 좀 만나주게.’ 했더니, 행

운이를 토하길랑 ‘이런 얘기 하려면 찾아오지 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십시오. 그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행운이 찾아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아멘!”

예배 후, 병든 자들을 단에 올려 축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분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다. 아직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남은 2주 동안 꼭 참석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란다. 기자 신도수

jesus7857@gmail.com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뛰고 있다



통곡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9:11~27)



갑질과 갑의 권리는 다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정말 없습니까? 아니요, 어디에 가든 위, 아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라니”(신 28:13)라고 하심으로 사람 간에 계층이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갑질하는 사회’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승무원을 겁박하고 항공기를 회항한 어느 항공 회사 임원의 일, 주차요원을 무릎 꿇게 한 어느 모녀의 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는 일... 우리는 이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 파생된 말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갑(甲)이 그렇지 못한 을(乙)에게 공평치 못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질과 갑의 권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갑질은 다 갑질이 아닙니다. 물론 정말 갑질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당연한 갑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학청년 연합수련회에서 향수업체 에데미니크의 김운유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수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것이 맘에 안 드니 다시 해라’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컴플레인을 걸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갑의 당연한 권리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갑질과 갑의 권리를 혼동하는데, 이제는 갑질과 갑의 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김 대표가 향수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 대표를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교인이니까요. 그렇다고 김 대표가 저에게 와서 “목

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기에 신뢰를 얻어 계속 수주를 따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이 그냥 갑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을의 단계를 지나 갑이 된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갑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에는 각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계속 불량품을 만들어오는데도 그것을 그냥 받아준다면 하청업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공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만들면 다른 업체를

찾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게 을 입장에서서는 황포총



총회장 이초석 목사

를 느껴 지냈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갑의 권리로 의무입니다. 이 때 을이 ‘아, 이렇게 하니 불량이 나는구나. 이것을 보완해 주겠다’ 하고 노력하고 연구한다면 그 을도 그 분야에서 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의 권리가 을의 성장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를 참 사랑하고 믿습니다. 동생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제가 청년대학 교육부서로, 대구로, 인천으로 여기저기 발령을 내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오늘날 서울교회 담임목사로서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느 목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내면 ‘강등되었다니, 퇴출이라느니’ 합니다. 총회장 목사라 맘대로 갑질 한다는 거지요. 그런 자에게 성장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저는 한

번에 ‘OK’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해봐’를 수없이 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요. 그런데 저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왜 다시 하라는 거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냐?’ 하는 부류와 ‘아, 왜 맘에 안 드실까? 이렇게 해볼까? 더 나은 방법이 될까?’ 하는 부류입니다. 제가 갑질 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의 책임자로서 교단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저만의 권리입니다. 어떤 자가 발전하고 성장하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주인

의 당연한 권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 트나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둔 자의 것을 빼앗고 어둔 곳에 내

는 것은 갑질이 아니라 주의 당연한 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짜 갑질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는 야곱을 부려먹고 노임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7년 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런 와중에도 성공한 것은 외삼촌의 갑질을 갑질로 생각지 않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행도 그랬습니다. 서울의 황포에도 그는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더니 서울보다 더 큰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식당을 합니까? 갑인 고객의 불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 친절하지 않다, 비위생적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대박 식당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옷 가게를 하는 팡끝예수전도단 회원이 있습니다. 그가 성공하는 비결을 묻기에 “고객이 옷

이 맘에 안 든다고 가져오면 언제든 바꿔줘라. 그들의 불만을 듣고 개선해라.” 했더니, 그대로 실행하여 가게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요즘 ‘컴플레인 마케팅’이 인기라고 합니다. 갑인 고객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고 시행하는 마케팅 전략이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가 갑입니다. 성도들이 불평을 하결랑, 뭐가 맘에 안 든다고 하결랑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여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면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까다로운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사,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하여 인내하고 노력하면 어디서든 목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절대 갑에게 대항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절대적인 갑인 하나님께 대항한 루시엘과 그의 추종자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집주인에게 대들었다가 방 빼라고 하면 난감한 일 아닙니까? 고객에게 따졌다가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수습 불가 아니겠습니까? 갑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을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갑을 향해 불만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불평대신 ‘갑이 나 잘 되라고, 성장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역경은 성공으로 가는 필수코스요, 필수과목입니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답니 다. 성공한 모든 자들이 이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행여 갑질을 당하결랑 그것을 에너지 삼아 더욱 뛰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상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계심은 갑질이 아니라 그 권세가 있음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갑은 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을이 잘 되어야 갑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갑이 갑질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함을 알고, 그에 따른 노력으로 성장발전을 이룹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롬 8:17).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사님, 저쪽 회사에서 자주 컴플레인을 거는데요.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이니까 말씀 좀 잘해주세요.” 라고 애원해서 제가 납품회사 대표에게 “그러지 마라. 이제 신생회사인데 좀 봐줘라.” 한다면, 납품회사 대표는 제 얼굴을 봐서 이번에는 그 제품을 받겠지요. 그러나 다시 계약하려고 할까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또 김 대표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김 대표 말대로 납기일을 맞추느라 힘들고,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그 문제



제20회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 (2016. 7. 28 ~ 30)



:: 교단소식 ::

십일조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젊음이 좋다. 열정, 패기, 도전... 그리고 삶의 여백이 많아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젊음이 더욱 좋다. 총회장 목사님은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7월 28일에 시작된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에서 너른 여백이 아름다운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주셨다.

“나는 가난이 싫은 목사다. 나는 너희가 잘 살고, 행복하길 누구보다 바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가난해서야 되겠니? 애들아, 돈은 유익한 거란다. 돈만큼 충성된 하인은 없다.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돈은 쫓아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세계 제일의 부를 축적한 록펠러를 보자.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십일조를 강조했고, 록펠러는 그것을 습관화해서 기업을 이룬 후에는 십일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 십일조를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십일조가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십일조를 해야 한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하셨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

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십일조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대차대조표를 통해 손실과 이익을 따져보고 손실 쪽은 정리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투자하게 함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3:11~12)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반드시 동업을 해야 한다.

올림픽 공원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이상 중에 소가 나타나 내게 ‘도둑놈’이라고 했다. 놀라서 ‘내가?’하고 묻자 ‘그래, 니가.’ 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예배 후에 안수를 할 때 간혹 성도들이 용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옆에 있던 장로가 받았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나 어려운 분들이 와서 형편을 토로 하면 받았던 용돈을 건네주었는데, 십일조를 안 내고 준 것이 문제였다. 그 후로 나는 철저한 십일조를 한다. 그랬더니 우

리 교단 재정은 늘 부족함이 없다. 십일조를 떼어 먹었는데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그러니 너희는 1,000원에서 100원을 드리는 습관부터 드리도록 해라. 분명히 말라기서의 축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비전세미나에서는 향수업체인 에메니크 대표 김은유 자매가 ‘십일조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이 주는 축복’에 대해 강의를 했다. 김 대표는 ‘모태신앙인 나는 어릴 때부터 십일조를 습관화했다. 어머니는 다 하나님 것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90%를 우리에게 주시고, 10%만 하나님이 돌려받으셨다고 가르치셨다’고 했다. 그는 예단으로 온 돈에서도 십일조를 드렸고, 결혼축의금에서도 십일조를 드려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들어보지도,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둘째 날, 이초석 목사님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청년대학부를 권면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가? 신분을 확실히 알고, 정체성을 확립해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비록 지금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왜냐? 너희 뒤

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좌절하고 낙담하는가? 왜 질주하지 못하는가? 고래 꿈을 이루는 것이 순조롭겠는가? 흥해 같은 문제도, 여리고 같은 문제도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흥해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역경과 고난은 꿈을 이루는 필수요소다.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위인들이나 믿음의 선전들의 삶이 순탄대로였겠는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여,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썩은 생각을 버리고 역경지수(AQ)를 높여 현실에 적응해간다면 반드시 고래 꿈을 이루어진다. 너희의 백 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삶은 녹록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낸다면 목사님의 소원대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 날, 통수권자가 이 교단에서 배출될 것이고, 이 교단의 자녀들이 각 분야의 수장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되길 바란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제20회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올해로 6년째 연합 회장을 맡아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총회장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이름도 없이 봉사로,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분들을 좀 더 가까이 보면서,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성껏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집회에서 이 자리에 꼭 와야 할 자만 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 사정에 의해 참석을 못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단 몇 시간 참석을 위해 밤을 새우며 참석한 지체들이 떠오르며, '교단의 미래를 짊어질 목사님의 오랜 기도의 주인공들이 모이는 자리구나! 내가 그런 귀한 지체들을 섬기는구나! 나 또한 이 자리에 소외되지 않고 불러 모아진 자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미래의 꿈을 반드시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유수경

나도 저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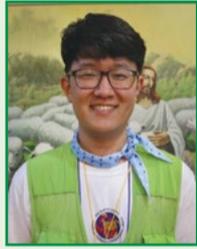


사실 나는 교회 수련회는 진부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내 생각은 바뀌었다. 첫째 날, 나는 약간 시큰둥한 태도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윽고 시작된 경배와 찬양 시간, 나는 찬양 팀원들의 순수한 열정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 사실 난 그때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별다른 열의가 없었다. 그런데 십일조에 관한 목사님의 생생한 설교를 듣고서 마

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또한 조별 활동 시간에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던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 없이 유지되던 그 열정, 그리고 자발적으로 단상 앞까지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뛰며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나는 막 침례식을 마친 일개 신도 중 하나일 뿐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본 그 사람들처럼 넘치는 열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고 싶다.

수련회 첫 참석자 이찬영(북경대)

목사님 사랑합니다



수련회에서는 항상 예수중심교회의 역사를 되새기는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통해 목사님의 열정과 패기는 변함이 없고, 그것에 더해진 노련함을 봤습니다.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패기와 열정을 몸소 본인의 삶을 교보재삼아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 4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강행군임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시는 순간까지 본인의 에너지를 발산하시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직접 본인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총회장 목사님이 곁에 계심이 커다란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교 중에 저의 심중에 깊이 박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을 회개하라'.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을 겪을수록 위축되어가는 제 모습을 회개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수중심회의 청년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값진 수련회였습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전호정

'Why not me?'



저는 올해 초 신소재 공학 석사학위를 획득하였고, 현재는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계획했던 일들에 자질이 생기면서,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의 길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수련회에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는데 충분했습니다. 나의 롤 모델이신 목사님께서 삶으로 보

여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발견하고, 신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광주예수중심교회 최광호

고래 꿈을 꾸다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군 입대를 앞둔 제 마음은 많은 고민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겠다.'고 결단했더니, 주님은 중고등부 교사와 대학청년부 부조장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습니다. 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라',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님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작은 꿈이 자라서 비전이 되었으나 너무 크고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제게 주신 비전의 타이틀과 타깃을 점검했고, 저에게 도전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담대하게 구체적인 확신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습니다. 오직 담대한 믿음과 전진을 구할 뿐! '주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대안학교를 세움으로 세대를 이어 주의 종 200억 명을 바치게 하소서.' 광주예수중심교회 정인성

나의 꿈을 위해 결단하라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이다! 각 분야에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라! 남들이 비웃을 만한 큰 꿈을 꾸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잊고 있었던, 남 몰래 묻어두었던,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하는 나의 꿈들을 떠올리게 했다. 내 상상 속에서 나는 이미 꿈을 이루고 기도원 단상 위에서 간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우가 꾸는 고래 꿈이 확실했다. 속으로 다시 물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나요?' 포기가 빠르고 자존감이 낮은 나에게 하나님은 설교로 응답해주셨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다 "왜 안 되냐고? Because you don't have a decision!" 내가 성공하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이다. 목마르던 나는 꿈과 결단을 마시고 돌아왔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꿈꾸는 자의 특권, 기다림을 누려 보련다. 목포사랑예수중심교회 이기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녀로 살고 싶은 직장인 6년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 시작된 수련회였습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목사님은 제일 먼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입으로 반복적으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자로 살기 위해 두 가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십일조와

웃긴 고래 꿈." 정확한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가능한 일이며, 내 삶 또한 분명하고 투명한 삶을 통해 잘 살 수밖에 없겠구나 깨닫게 되었고, 남들이 '그게 뭐야' 웃을 만한 고래 꿈을 통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또 한번 배웠습니다. 예전에 잊고 있었던 나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 인생 스토리의 결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결단하고, 나를 똑똑히 바라보고, 오늘밤 '웃긴 고래 꿈' 한번 제대로 꾀봐야겠습니다.

대구예수중심교회 신혜란

제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첫날 입술에서 나온 기도는 '내가 잘돼야 해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족 중 우리 집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할머니께서는 "교회에 다니면서 니들이 잘된 게 뭐냐?" 하십니다. 제가 증거가 되어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기도 중 이초석 목사님께서 "너희가 잘 되어야 해!", 소름이였습니다. 잘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동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둘째 날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보험신청을 앞

둔 제게 고용보험의 첫 소득을 첫 열매를 냈다는 간증에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 왜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나. 나를 성장시키고 범사에 감사하고 인내하며 다스릴 곳을 살펴보고 사냥을 시작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새우꿈이 아닌 고래 꿈을 꿀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더 정직하고 진실 되게,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제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대전예수중심교회 신믿음